

서얼, 케니, 그리고 감정의 지향성 이론의 정초*

김 영 진†

감정의 지향성에 대한 보다 더 적절한 이론의 정립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 논문은 감정의 본성에 관한 서얼과 케니의 인지주의를 토의한다. 논의의 초점은 서얼의 일반 지향성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을 이론적으로 얼마나 잘 대면할 수 있는지에 맞추어져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서얼의 지향성 이론이 특히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초적인 기본 감정들의 지향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감정에 관한 서얼의 인지주의적 지향성 이론이 케니가 제안하는 두 상이한 종류의 감정들-즉 언어의 사용 없이 경험될 수 있는 유형의 감정들과 언어에 정통함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부류의 감정들-의 지향성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제시한다. 이 같은 고려와 함께 필자는 감정의 지향성에 대하여 서얼과 케니가 옹호하는 인지주의가 감정 상태의 내용이 결정되는 방식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주요어】 감정, 지향성, 감정의 지향성, 인지주의, 서얼, 케니

I.

심적 상태는 통상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사태를 표상한다. 말하자면 심적 상태는 보통 그 상태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에 관한(about)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그 같은 속성이나 기능을 지향성(aboutness; intentionality; directedness)이라고 부른다. 심적 상태의 한 특수한 유형으로서 감정(emotion) 역시 지향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여움을 느낄 때 우리의 노여움은 그것이 “노여움”이라고 불리는 감

* 접수 완료 : 2007. 5. 21 / 심사 및 수정 완료 : 2007. 6. 13.

† 동국대학교 철학과 강사

정 상태 자체와는 다른 어떤 사물이나 인물 혹은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향성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는 감정들이 지향성을 지닌다는 тезис은 지향성 이론 일반의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심각하게 간과해온 한 요점을 갖고 있다. 필자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어떠한 일반적인 지향성 이론도, 그것이 실제로 여러 지향적 현상들에 대한 일반 이론이라면, 감정이 지향성을 갖는 한 적어도 원리적으로 그 같은 감정의 지향성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감정의 지향성에 관한 이론은, 만일 감정이라는 심적 상태가 여러 다른 심적 상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변칙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일반적인 지향성 이론 속으로 모순을 일으킴이 없이 원리 상 편입될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의 지향성 문제에 관하여 지금 내린 철학적 진단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필자는, 많은 심리 철학자들과 지향성 철학자들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그 점을 적절하고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의 요점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음 두 물음을 제기해 보자: 한편으로, 최근의 분석철학 전통에서 감정의 지향성을 전반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어떤 확립된 일반 지향성 이론이 존재하는가? 또한 다른 한편으로, 어떤 적절한 형태의 일반 지향성 이론으로 확대되어 발전할 수 있는 감정의 지향성 이론이 현재 존재하는가? 이 물음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한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를테면 우리는 포더(Fodor, Jerry)나 드레츠키(Dretske, Fred)나 밀리칸(Millikan, Ruth)의 지향성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아직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케니(Kenny, Anthony), 윌슨(Wilson, J. R. S.), 로티(Rorty, Amelie), 솔로몬(Solomon, Robert), 드 수자(De Sousa, Ronald)와 같이 감정의 지향성 문제에 대한 뼈어난 해명을 준 철학자들이 보다 더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지향성 이론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운한 일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현 시대의 많은 지향성 이론가

들이 감정의 지향성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이에 필자는, 지향성 철학자들이 감정의 지향성 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실질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본 논문은 감정의 지향성에 관련한 특정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실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지 않은 감정의 지향성 이론 일반의 정립과 관련한 이론적 문제에 관여한다.¹⁾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감정의 지향성에 관련한 이른바 인지주의적 접근과 이해의 적절성과 타당성이다.²⁾ 특히 이 글에서 필자는 감정의 지향성의 문제를 케니와 서얼(Searle, John)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 이유는 전자가 감정의 본성의 문제에 대하여 주목할 만하게 대두하는 인지주의(cognitivism)-즉 감정의 소유와 경험에는 기본적으로 사유가 개입해 있다는 관점-의 선구자이며, 후자는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지향성 이론 전반에 편입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장 많이 갖춘 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지향성의 본성에 관한 그 둘의 관점이 이른바 “인지주의”에서 수렴한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같은 인지주의의 틀 위에서 잘 해명되지 않는 유형의 감정들이 존재하며, 나아가 그 같은 부류의 감정들의 지향성의 해명과 관련하여 서얼이 제시하고 옹호하는 인지주의적 이론이 그 전반적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인 면에서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감정의 지향성에 대한 좀 더 적절한 이론의 정립을 위한 한 토대가 무엇일 수 있는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여기서 필자는 감정의 지향성에 관한 서얼의 인지주의적 이론을 구성하는 한 근본적 원리-즉 감정 상태(emotional state)의 내용은 명제적이며 그 같은 감정 상태의 내용이 그 상태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원리-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

1) 그 점에서 이 논문은 논쟁적(argumentative)인 성격과 더불어 연구 프로그램의(programmatic) 특성을 띤다.

2) 여기서 물론 ‘타당성’이라는 용어는 연역 논리적 의미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주장의 이론적 실마리를 감정의 본성에 대한 인지주의의 선구자 케니의 최근 통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뭇 흥미롭다.

다음에서 필자는 먼저 감정의 지향성의 한 특징을 지적하면서 감정의 본성에 대한 서얼의 인지주의적 관점을 살펴본다(Ⅱ장). 그리고 케니의 인지주의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서얼의 인지주의와 정확히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Ⅲ장). 그런 뒤 필자는 서얼의 지향성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을 대면하는 데서 나타나는 난점이 무엇이며(Ⅳ장), 또한 그 이론이 상이한 유형의 감정들의 존립과 관련한 케니의 통찰을 배경으로 어떤 새로운 이론적 틀을 요구하는지 밝힐 것이다(Ⅴ장).³⁾

Ⅱ.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심적 상태로서의 감정은 지향성을 지닌다. 철학자들은 감정 상태가 정향해 있는 것을 감정 상태의 “대상(object)”—또는 어느 경우 다소 막연하게 “내용(content)”—이라고 부른다.⁴⁾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 상태의 대상이나 내용이 이 세상에 현존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현존적 대상물(non-existent entity)을 언어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그

3) 논문 전체에서 필자는 서얼의 지향성 이론을 심각하게 고찰하는 바, 그 이유는 이미 언급했듯이 서얼이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에서 지향성 이론 일반에 편입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장 많이 갖춘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지향성에 대한 확립된 이론을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하다.

4) 서얼과 같이 지향적 상태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철학자는 감정 상태의 대상과 내용 또한 뚜렷하게 구분할 것이다. 이후에 우리는 그 점에 관해 더 논의할 것이다.

같은 종류의 표상의 가능성과 타당성 문제는 소위 지향적 대상의) 존재론적 위상에 관한 난제를 야기한다. 또한 인식론의 측면에서 그것은 종종 거짓 사유(false thought), 모조 사유(mock thought) 또는 오류 표상(misrepresentation)의 문제를 일으킨다. 요컨대 비현존적 대상물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과연 존립하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과연 글자그대로 가능한지의 물음들은 지향성에 관련한 전통적인 철학적 난문을 형성하며 그와 동시에 적절한 지향성 이론의 성공적인 건립을 막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든, 예컨대 “웅녀”, “홍길동”, “줄리엣”, “슈퍼맨”, “귀신”, “지옥”, “천국”, 그리고 심지어 “신”과 같은 비현존적 대상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감정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리 문제시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비현존적 대상물에 대한 감정을 참된(true) 감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감정은 그것이 정향해야 할 실제적인 대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감정은 여전히 어떤 진정한(authentic) 형태의 감정이다. 비록 신이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신에 관한 어떤 진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특별한 감정들을 지닐 수 있다. 이에 지향적 상태가 정향하거나(is directed at) 혹은 정향하기로 되어있는(is supposed to be directed upon) 대상의 특수성과 다양성과 이종성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감정의 지향성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
- 5) 여기서 “지향적 대상”이라는 이념은 “지향적 상태가 정향해 있는 사실적 사물이나 사태”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지 “지향적 상태가 정향해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각에서 지향적 상태의 내용과 대상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향적 상태는 이 세상에 현존하지 않는 대상물(entity) 역시 표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향적 상태는 사실적 대상을 결여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향적 대상”이라는 철학적 이념은 꽤 애매하고 모호하지만 그 말이 쓰이는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그 용어가 의도하는 뜻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현대의 지향성 철학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는 듯하다. 돌이켜 보건대, 정신의 지향성의 근대적 재발견자인 브렌타노(Brentano, Franz)가 감정들-즉 사랑과 증오의 현상들-이 심적 현상의 전체적인 지도(map)안에서 특별한 위치와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을 때⁶⁾ 그것은 확실히 일리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지향성 이론가들이 브렌타노의 그 통찰을 보다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⁷⁾

그런데 최근 분석적 전통에서 가장 체계적인⁸⁾ 지향성 이론가로 간주되는 서얼이 마침내 감정의 지향성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서얼은 그의 1983년 주저 『지향성』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은 어떤 지향성 이론을 전개하는데 있다. 많은 여타의 주제들 예컨대 감정들의 문제가 토의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으므로 나는 그 이론을 한 전반적인 이론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제시된 접근법이 지향적 현상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리라고 믿는다.⁹⁾

6) Brentano 1924, pp. 197-199 참조.

7) 더욱이 감정들은 종종 인지적 주체의 행위와 행동의 원인 혹은 동기를 이룬다. 예를 들어, “놀람”과 같은 단순 감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있어서도 어떤 본능적인 반사행위를 일으킨다. 반면에 “연민”과 같은 복합 감정은 인지적 주체의 신중하면서도 의도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인지적 주체가 그가 속한 환경에 대하여 소유하는 통상적인 믿음과 욕구만이 그 인지적 주체의 행위와 행동의 유일한 동인은 아니다.

8) 필자가 서얼의 지향성 이론을 체계적이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그가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지향성 이념에 관련된 여러 기본 개념들-예컨대 “지향적 상태”, “지향적 상태의 내용”, “지향적 상태의 대상” 등-을 먼저 엄밀하게 정의한 뒤, 나아가 “명제 내용”, “부합 방향”, “충족 조건”, “지향적 상태의 네트워크”, “지향성의 배경”등의 고유한 이론적 원리들을 가지고 지향적 현상들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개념들과 원리들은 서얼의 지향성 이론 내에서 일관적으로 통합되어 있다(Searle 1983, 1장을 참조하시오).

9) Searle 1983, 서론 vii쪽.

서얼이 그 책에서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은 진정 기이한 일이다. 정신의 지향성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감정의 지향성 문제를 뚜렷하게 인식하면서도 왜 서얼은 그의 주저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일까? 감정의 지향성을 이론화하는 일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고 서얼은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일이 보기와는 달리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일까? 그 물음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무엇이든, 마침내 1998년 저서 『마음, 언어, 그리고 사회: 실제 세계에서의 철학』에서 서얼은 이렇게 쓰고 있다:

지향적 상태들이 충족 조건들을 갖는다는 것은 명제 내용을 지닌 지향적 상태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 사랑과 증오와 같은 어떤 완전한 명제 내용을 소유하지 않는, 그러므로 충족 조건들을 갖지 않는 지향적 상태들은 내가 믿기엔 어떤 완전한 명제 내용을 지니고 있는 충족 조건들을 갖는 지향적 상태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컨대 어떤 인물에 대한 일련의 믿음들과 욕구들을 소유함이 없이 그 인물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 믿음들과 욕구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하여 갖는 사랑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비록 표층적으로 사랑이 충족 조건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경우에 언제나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충족 조건들을 소유하는 일련의 지향적 상태들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자랑스러움과 같은 완전한 명제 내용을 지니지만 어떠한 부합 방향도 갖지 않는 감정들은 어떤 부합 방향을 갖는 믿음들과 욕구들에 의하여 보통 구성된다; 부합 방향을 갖지 않는 지향적 상태들도 그런 방식에서 충족 조건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경주에서 이겼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한다면, 그 경우 나는 적어도 (a)내가 경주에서 이겼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며 그리고 (b) 내가 경주에서 이겼다는 사례(case)를 바람직하다고 간주하거나 혹은 그 사례를 원해야 한다.¹⁰⁾

10) Searle 1998, pp. 103-104.

이 인용문은 감정의 지향성의 본성에 대한 서얼의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기서 서얼은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충족 조건(conditions of satisfaction)”, “부합 방향(directions of fit)” 등과 같은 자신의 지향성 이론의 여러 기본적인 원리들을 토대로 지향적 상태로서의 감정의 특성을 제시한다. 감정의 지향성에 대한 일반 이론을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개념들과 원리들을 보다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주어질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할 점은, 서얼의 관점에 따르면, 감정이 어떤 확정적인 명제 내용을 지닌 믿음과 욕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종종 그러한 입장을 감정의 본성에 대한 “인지주의”라고 부른다. 필자는 서얼의 인지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 (i) 믿음과 욕구는 명제 내용을 지닌 인지적 작용이다.
- (ii) 그 같은 특성의 믿음과 욕구로부터 성립하는 감정들은, 믿음과 욕구가 지닌 인지적 속성과 합리성이 바로 감정들에게로 전이되어 그들을 구성한다는 취지에서, 어떤 특수한 형태의 인지적 심적 상태이다.

여기서 감정의 지향성은 믿음이나 욕구의 지향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인지적 지향성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으로 감정의 본성 및 그 지향성의 특질에 대한 서얼의 인지주의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승인가능한 입장이다. 감정들의 소유와 경험에는, 비록 모든 감정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떤 인지적 요소가 분명히 개입해 있다.¹¹⁾

11)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인지적 속성을 지닌다는 тезис가 사실상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그 타당성이 인정된 철학적·과학적 교의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여러 고전적 철학자들-예컨대 흄(Hume, David)-이 그 тезис와 관련한 통찰을 제시했지만, 적어도 현대 영미철학의 틀 속에서는 1960년대 초·중반부터 케니가 최초로 명시적인 방식에서 그 이론을 제창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한 특기할만한 점은 서얼이 그의 지향성 이론 일반의 틀 위에서 그 같은 인지주의를 채택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얼의 인지주의는 비록 그것이 어떤 특정한 유형의 감정들의 지향성을 명료하고 방식에서 잘 다룰 수 있다 해도 어떤 다른 유형의 감정들의 지향성-특히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유하는 소위 원초적인 기본 감정들의 지향성-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서얼의 인지주의적 지향성 이론이 지니는 거대한 난점으로 보인다. 이는 나아가 서얼의 인지주의적 지향성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이론적 틀(framework)을 요구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왜 그 이론이 그러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서얼의 인지주의가 바로 그 특정한 철학적 교의의 근대적 창시자인 케니의 인지주의와 정확히 어디에서 만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III.

케니가 감정의 본성에 대한 인지주의를 다소 조야한 방식에서 최초로 개진한 것은 그의 1963년 저서 『행동, 감정, 그리고 의지』에서였다. 케니는 그의 1984년 저서 『마음의 형이상학』에서 그 철학적 교의의 정수를 다음과 같이 보다 더 간명하게 표현한다: “인간이 소유한 대부분의 감정들은 높은 지성적 성격을 지닌 사유들을 통하여 야기된다.”¹²⁾ 이 같은 시각에서 감정은 단지 수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그러한 능동적인 사유를 동반해서 성립하는 인지적 심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¹³⁾ 그러면 다시 물어보

하였다.

12) Kenny 1989, p. 51.

13) 이 형태의 감정 인지주의를 심리학의 철학과 인지과학에서 제기되는 인지

자: 케니의 인지주의는 서얼의 인지주의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가?

이 점을 논구하기 위해 편의상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서얼의 일반 지향성 이론을 구성하는 몇몇 중요한 이론적 원리들에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서얼은 지향적 상태의 대상과 내용을 구분한다. 그의 관점에서 지향적 상태의 대상은 마음이 정향하는 사실적이고 외재적인 표적-즉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태-이다. 반면에 지향적 상태의 내용은, 그것을 통하여 마음이 표적(대상)에 정향하게 되는 것-즉 일종의 매개체(mediator)-이다. 서얼은 지향적 상태의 내용이 지향적 상태의 한 구조적인 요소라고 본다. 이와 함께 서얼에 따르면 지향적 상태를 구성하는 또 다른 구조적 요소가 있다. 그것은 지향적 상태의 심리적 양태(mode) 즉 지향적 상태의 특정한 질적인 성격이다.

지향적 상태의 구조에 관한 그러한 통찰과 더불어 서얼은 “표상은 그것의 내용과 양태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이지 그것의 형식적 구조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¹⁴⁾라고 설파한다. 여기서 우리는 표상의 본성에 대한 서얼의 입론의 진가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입론은 지향성 이론 일반의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감정들의 내용적인 성격-즉 지향성-과 그들의 체험상의(experiential) 질적인 특성에 관한 적절한 이해와 분석의 여지를 원리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지향성을 일반 지향성 이론 속으로 편입시키기를 원하는 이론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점은, 본 논문의 말미에서 필자가 다시 언급할 것이지만, 현재 제시된 여러 지향성 이론들 중에서 서얼의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을 가

주의와 비교해 보자. 그 비교의 핵심은 우리의 두뇌 안에 감정들을 나타내는 어떤 형식적인 내적 표상 체계가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집약된다. 그것은 확실히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경우든 그러나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요점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감정들의 경험은 사유와 언어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다.

14) Searle 1983, p. 12.

장 잘 해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게 한다. 필자는 그 추측을 받아들인다.

한편, 서얼의 관점에서 지향적 상태는 통상적으로 정신에서 세계로의 부합 방향 또는 세계에서 정신으로의 부합 방향을 갖는다. 필자가 ‘통상적으로’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왜냐하면 부합 방향을 갖지 않는 지향적 상태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상 이 문제는 잠시 제쳐 두고-우리는 그런 지향적 상태들인지 무엇인지 곧 볼 것이다-지향적 상태의 부합방향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당신이 지금 “눈은 희다”라는 믿음을 소유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즉, 참이기 위하여-당신의 마음속의 그 믿음은 세계 속의 특정한 사태-즉, 눈이 흰-에 부합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개입하는 부합 방향을 서얼은 “정신에서 세계로의 부합 방향”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당신이 “나의 손을 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 그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는, 세계안의 특정한 사태가 당신의 마음속의 그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얼은 그 같은 유형의 부합 방향을 “세계에서 정신으로의 부합 방향”이라고 일컫는다.

서얼에 따르면, 명제 내용과 부합 방향으로 이루어진 지향적 상태는 이른바 그 지향적 상태의 “충족 조건”을 갖는다. 그에 의하면, 지향적 상태의 충족 조건은 “지향적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지향적 상태가 만족될 경우 존립해야만 하는” 조건이다.¹⁵⁾ 서얼은 그 충족 조건을 어떤 지향적 상태가 참이 되거나 만족되기 위하여 요청되는(postulated) 사물로 보통 이해한다.¹⁶⁾

지금까지 서술된 지향적 상태의 구조와 성격의 틀 속에서 서얼은 두 가지 특기할만한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어떤 특정한 부합 방향을 갖는 지향적 상태가 존립하는 경우 그 지향적 상태는 언어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는 표상적 명제 내용을 소유한다. 둘째, 바로 그렇

15) Searle 1983, pp. 12-13.

16) Searle 1983, p. 13.

게 이해되는 지향적 내용이 지향적 상태의 충족 조건을 결정한다. 우리는 이 이론적 원리를 종종 “결정성 테제(the Determination Thesis)”라고 부른다. 이 테제의 명시적인 철학적 기원은 언어적 기호의 뜻(Sinn)이 그 기호의 지시체(Bedeutung)를 결정한다는 프레게(Frege, Gottlob)의 의미론적 교의이다. 그 테제가 지향성 이론 안으로 전이될 때 그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우리가 어떤 지향적 상태를 소유할 때 그 지향적 상태가 정향하는 대상 혹은 표적은 언제나 그 대상이 맞아 떨어지는(fall under) 어떤 기술적(descriptive)·개념적(conceptual) 조건들을 가지며 오직 이 조건들을 통해서만 지향적 상태의 주체는 그 대상이나 표적에 인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 기술적·개념적 조건들이 정신에 의하여 파악될 때 서얼은 그것을 “지향적 내용(intentional content)”이라고 부른다. 그에게 있어서 지향적 내용은 지향적 상태의 대상이나 표적을 규정하거나 상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측면에서, 앞서 잠깐 지적되었듯이, 지향적 내용은 마음과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매개체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지향적 상태가 그것과 결부된 지향적 내용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 심각한 귀결은, 그 경우 우리는 결코 지향적 상태가 정향하는 대상이나 사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identify)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이하게도, 문제시되는 그 지향적 상태는 더 이상 적절한 형태의 지향적 상태일 수 없다. 이에 지향적 상태의 내용은 그 상태가 정향해 있는 사물이나 대상 혹은 사태로 접근하는 유일한 인지적 연결체로 간주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향적 상태로서의 감정 상태의 부합 방향과 명제 내용과 충족 조건이 무엇일 수 있는지의 문제를 주의 깊게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외관상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서얼의 지향성 이론 내에서 쉽게 대답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앞에서 필자는 서얼의 입장에서 지향적 상태는 통상적으로 정신에서 세계로의 부합 방향 또는 세계에서 정신으로의 부합 방향을 갖는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서얼에 따르면, 부합 방향을 갖지 않는 지향적 상태들은 바로 감정 상태들이다. 즉 우리의 감정들이 표현된 언어들뿐

만 아니라 그들이 개입된 심적 상태들은 어떤 직접적인 형태의 부합 방향-그것이 정신에서 세계에로의 부합 방향이든 또는 세계에서 정신으로의 부합 방향이든-을 소유하지 않는다.¹⁷⁾ 그 면에서 감정 상태들은 명백한 충족 조건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그 감정 상태들이 충족 조건을 전적으로 결여한다는 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서얼에 의하면, 비록 감정 상태들이 분명한 부합 방향을 갖지 않으므로 적어도 외관적 차원에서 확정적인 충족 조건을 결여하지만 실제로 그 같은 지향적 상태들은 그 충족 조건을 어떤 암묵적인 방식에서 전제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같은 방식에서 감정의 지향적 상태는 믿음과 욕구가 지닌 충족 조건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이는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명제 태도들이 감정들을 구성한다는 말이다. 즉 감정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데에, 어떤 전제된 명제 태도들이 그 필요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명제 태도를 소유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의 전형적인 특색이므로, 서얼의 인지주의와 케니의 인지주의는 마침내 여기서 서로 만난다.

IV.

이제 감정의 지향성 이론의 정초와 관련하여 우리가 제기해야 할 결정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사유 혹은 명제 태도를 먼저 보유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한 것일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유나 명제 태도의 소유를 전제하지 않는 감정의 존립과 경험은 불가능한 것일까? 필자의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마도 적지 않은 경우들에서 사유나 명제 태도의 소유가 감정의 성립과 경험에 한 필요조건이 될 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답을 지지하는 단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다음 상황을 가정해 보자: 당신이 지금 어느 공원을 산책하는 중

17) Searle 1983, p. 8; Searle 1998, p. 104.

이다. 그리고 그 때 어디선가 야구공이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갑자기 날아온다. 운 좋게도 당신은 그 날아오는 공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그 공이 얼굴에 부딪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보통 당신은 놀람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며 그 경험은 특정한 신체적 반응을 수반한다. 여기서 그 놀람이라는 감정의 성립과 경험을 조건지우는 명제적 믿음이 과연 정확히 무엇일까? 앞의 사례에서 아마도 그것은 “야구공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온다”는 명제 내용을 지닌 믿음일 것이다. 이 측면에서 놀람이라는 감정은 명제 태도로서의 믿음의 보유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명제 태도는 언어에 대한 습득과 정통을 전제로 성립되는 고차원적인 심적 태도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상황에서 바로 그 같은 형태의 명제 태도의 소유 없이도 나아가 심지어 언어에 대한 습득 없이도 놀람이라는 지향적 상태와 그에 따르는 반사적 행위가 사실 상 적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아직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사람 및 동물들의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더 잘 이해된다. 반복컨대 요점은, 당신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공을 당신이 알아차릴 때 개입하는 믿음의 특성은 만일 그러한 인지적 상태를 어떻든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언어에 대한 습득과 정통을 전제로 하는 어떤 확정적인 명제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사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하자. 당신이 당신의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때 굉장히 큰 소음이 갑자기 울려와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 모두가 놀랐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의 놀람 혹은 공포는 “나는 내가 큰 소음을 듣는다고 믿는다”라는 명제적 믿음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일까? 아닌 것 같다. 거기에서 명제적 믿음의 소유는, 말하자면, 잉여적이다. 설사 어떤 형태의 대물적(de re) 믿음이 그 감정의 성립과 경험에 연계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글자 그대로 인지주의자가 말하는 명제적 믿음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문제를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인간과 인간 이외

의 어떤 부류의 동물들 양쪽 모두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명제적 믿음을 필연적으로 전제함이 없이 어떤 특정한 유형의 감정들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마침내 드러나는 점은, 서얼이 암시하는 감정의 지향성 이론 및 그의 일반 지향성 이론이 앞서 언급된 특정 유형의 감정들의 지향성을 해명하는 데에 어떤 큰 난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방금 필자가 내린 진단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감정의 본성 문제에 대한 케니의 통찰을 다시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앞에서 필자는 케니의 입장의 핵심을 드러낼 목적으로 그의 다음 말을 인용하였다: “인간이 소유한 대부분의 감정들은 높은 지성적 성격을 지닌 사유들을 통하여 야기된다.”¹⁸⁾ (우리가 이미 보았듯 이것이 감정의 본성에 대한 케니의 인지주의이다.) 흥미롭게도 케니는 그 진술에 다음 언명을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아이와 성인 사이의 연속성 그리고 나아가 인간과 동물사이의 근사성(kinship)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느낌과 감정의 영역 안에서 이다.”¹⁹⁾ 이 언명을 통해 케니는 성인(human adult)과 아이(human child) 그리고 심지어 인간 이외의 동물들(non-human animals)이 원리적으로 모두 함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형의 감정들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이미 암시되었듯이 우리는 그런 종류의 감정들을 “근원적(primitive) 감정들” 혹은 “기본적(basic) 감정들”이라고 불러도 좋다.²⁰⁾

주목해야 할 점은, 케니의 그 통찰이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 양자가 그러한 근원적 감정들을 소유하고 경험하는데 요구되는 어떤 공통적인 사유를 갖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 특히 성인이 그의 인지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사유는 이른바 근원적 감정들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 두 선언지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18) Kenny 1989, p. 51.

19) Kenny 1989, p. 51.

20) Stein and Oatley 1992 참조.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가 풀어야할 심각한 난제라고 본다. 감정의 본성 및 그 지향성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곤경으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다.²¹⁾

감정의 지향성 이론 정립과 관련해서, 케니 스스로가 자신의 통찰의 한 함축점이 위의 난제를 심각하게 형성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예견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간접적으로나마 제시한다. 즉 케니는 그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상이한 두 종류의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암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²⁾

그 첫 번째 종류의 감정에는 비언어적으로(non-linguistically)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속한다. 이들은 정열(passions)이라고 불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감정들인바, 그들은 배고픔, 목마름, 성욕, 졸음과 같이 신체 상태들에 관계된 감정들이다. 비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열들은 물론 언어적으로 표현가능하다. (...) 그 두 번째 종류의 감정에는 오직 언어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속한다. 오직 언어 안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안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감정들이 있다. 이 부류에는 무엇보다 경의감, 죄책감, 신앙, 그리고 숭배와 같은 종교적 정서(sentiments)가 속한다. 우리는 참으로 ‘정서’라는 단어를 그 같은 부류의 느낌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 결과 감정의 종류는 정열과 정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여기서 케니는 상이한 두 유형의 감정들-즉 언어를 사용함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들과 언어에 정통함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부류의 감정들-을 구분한다.²³⁾ 이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통

21) 불운하게도 문제는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 난제를 난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Kenny 1989, pp. 57-58.

23) 이는 정열(passions)과 정서(sentiments) 사이의 단순한 구분이 아니다. 필자는 그것이 “언어를 사용함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표상”과 “언어

찰이다. 우리는 그 구분이 앞에서 제시된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 나아가 그 관점 위에서 우리는, 이른바 근원적 감정들을 케니가 소위 정열들이라고 부르는 유형의 감정들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같은 감정들의 경험의 필연적으로 언어나 사유를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원리상 언어나 사유에 의해 그 동일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그 해결책이 근원적 감정 상태의 경험은 그 지향적 상태에 연계한(혹은 연계하기로 되어있는) 명제적 내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 편으로 암시한다는 것이다. 논의의 목적상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기로 하자.

이제 서얼이 그 자신의 지향성 이론 틀 내에서 그 딜레마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명제 태도 혹은 지향성의 소유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강한 형태의 인지주의를 옹호하는 데이빗슨(Davidson, Donald)과 같은 철학자와는 달리²⁴⁾ 서얼은 특히 유아들과 동물들이 어떤 형태의 진정한 지향적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²⁵⁾ 본 논의와 관련하여 그것은 인간 및 인간이 아닌 동물이 원리상 어떤 유형의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점은 케니의 입장과 꽤 일치한다. 그러나 케니와 달리 서얼은 상이한 유형의 감정들의 존재-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각 유형의 감정들의 상이성-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서얼은 감정들의 성격과 그들의 지향성이 결코 이종적(heterogeneous)일 수 없다는 관점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채택하고 옹호한다. 그것이 초래하는 난점은, 이미 지적되었듯이, 서얼의 인지주의가 근원적 감정과 사유와의 관계에서 야기하는 위의 딜레마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아직 말을 깨치지 못한 유아와 유인원 양자가 공유할 수 있는 원초적인

에 정통함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부류의 표상”의 구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4) Davidson 1982 참조.

25)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Searle 1994 참조.

기본 감정들을 고려해보자. 그들은 어떤 원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공포, 행복, 슬픔, 노여움 등을 포함할 것이다.²⁶⁾ 그런 감정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유아와 유인원 모두 일련의 원시적인 형태의 사유를 가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사유가 완전한 형태의 명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명제 태도의 소유가 언어의 충분한 습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요점은 유아와 유인원이 완전한 형태의 명제 태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이 어떤 근원적인 감정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 감정들의 지향성 및 그 작동방식은 언어의 습득을 전제로 하는 감정들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본다.²⁷⁾

V.

이 글의 독자들은 지금까지의 논의가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 아마도 서열의 일반 지향성 이론 내에 어떤 특정한-그러나 발생적으로 가장 원초적인-유형의 감정들의 지향성을 원리적으로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그 같은 암시를 부분적으로 용인한다. 그렇지만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적 지향성 이론의 의의를 수용하는 필자는, 서열의 지향성 이론이 갖는 그 난점이 원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종류의 근본적인 난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다. 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러할까?

단적으로 말하여, 그 난점은 지향적 상태의 내용과 대상이 본질적

26) 문제시되는 각각의 감정이 원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그것이라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감정도 원시적인 형태와 세련된 형태가 있다.

27) 물론 케니가 암시하듯이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감정들은 언어적으로 표현가능하다. 그러나 반복컨대 그런 유형의 감정들을 직접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들의 언어적 표현가능성은 잉여적이다.

으로 구분되며 또한 지향적 상태의 내용은 언제나 명제적이라는 서얼의 가정에 관련한다. 서얼의 관점에서 지향적 상태의 명제적 내용은 언제나 그 지향적 상태의 대상이나 표적을 결정하지만 그 역-다시 말해 지향적 상태의 대상이나 표적이 지향적 상태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원리가 근원적 감정-예컨대 놀람-의 대상을 결정할 명제적 내용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를 사실상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모두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감정의 철학 내에서는 혹은 그 심리학 내에서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근원적 감정의 지향성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서얼의 이론의 공리 즉 감정 상태의 대상과 내용이 언제나 확연하게 구분되며 후자는 늘 명제적이라는 가정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와 관련하여 어쩌면 인지적 판단 이전의 근원적 감각이나 지각 혹은 감정의 영역에서 지향적 상태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확정적인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참일지 모른다. 이는 실재와 지향성의 소유자 사이에 걸쳐있는 어떤 존재적 모호함을 함축하나 그 모호함의 영역이 바로 사물과 유기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점일지도 모르겠다.²⁸⁾

결론을 내려 보자: 지향성 이론과 인지주의적 감정 이론을 연관시켜 고찰하면서 필자는 서얼의 일반 지향성 이론이 우리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지향성 이론들 중 감정의 지향성을 가장 원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일 것이라고 본다. 그 면에서 필자의 제안은 감정의 지향성을 해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된 서얼의 이론적 공리-즉 결정성 테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수정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필자의 요점은, 서얼의 지향성 이론이 감정의 지향성을 보다 더 적절하게 다룰

28) 말하자면 근원적 감정들과 같은 지향적 상태는 확정적인 명제적 내용의 매개나 원조 없이 작동가능하며 또한 경험가능하다. 그것은 영장류들의 진화과정에서 그 영장류들의 신체와 자연 환경사이의 직접적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보인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바로 케니가 제안하는 두 상이한 종류의 감정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공준(postulate)을 서얼의 일반 지향성 이론의 원리로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그 공준은 지향성 이론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적 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이론적 틀은 감정 상태의 내용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가정-즉, 한 편으로 감정 상태의 내용과 대상이 대체로 구분되어 많은 경우에 그 내용이 대상을 결정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이 언제나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는 감정 상태의 대상이 그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포함할 것이다.

남아 있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향적 상태의 내용이 그 대상을 결정한다는 고전적 공리의 영향력이-그것이 합당하든 그렇지 않든-너무 강하기에 우리가 그 이론적 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 측면에서 감정의 지향성에 관한 보다 더 적절한 이론 건립을 위한 정초 작업은, 특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주하는 지향성의 현상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의 그것을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 인지주의적 관점의 수용과 더불어 지향적 상태의 내용의 본성에 관련한 고전적 가정에 대한 어떤 명시적이고 근거 있는 의심을 포함할 것이다. 다소 알궂게도 바로 이 점이 감정의 지향성의 이론 건립을 향하여 우리가 서얼과 케니의 여러 통찰들로부터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한 중요한 이론적 교두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²⁹⁾

29) 이 논문의 한 초안은 한국과학철학회 2006년도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그 학술대회에서 본 논문의 논평자였던 백도형 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학술지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김세화 (2005).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와 그에 대한 수정」, 철학, 84, pp. 157-172.
- 김한승 (2003). 「감정에 관한 또 하나의 퍼즐」, 미학, 34, pp.115-144.
- Brentano, Franz. (1924).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English Tr. by A. C. Rancurello, D. B. Terrell, and L. L. McAlister, 1973, New York: Humanities Press.
- Davidson, Donald, (1982). "Rational Animals," *Dialectica*, 36, 1982.
- Deigh, John (1994). "Cognitivism in the Theory of Emotions," *Ethics*, 104, pp. 824-854.
- DeLancey, Craig (2002). *Passionate Engines: What Emotions Reveal about Min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Sousa, Ronald (1987). *The Rationality of Emotio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Hookway, Christopher (2002). "Emotions and Epistemic Evaluations", in P. Carruthers et. al. eds. *The Cognitive Basis of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Anthony (1963).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_____ (1989). *The Metaphysics of Mind*, Oxford: Clarendon Press.
- Putnam, Hilary (1975). "The Meaning of "Meaning"," in H. Feigl and G. Maxwell (eds.)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ume VII: Language, Mind, and Knowled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Rorty, Amelie (1978). "Explaining Emo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75, pp. 139-161.
- Rowlands, Mark (2002). *Animals Like Us*, London: Verso.
- Searle, John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4). "Animal Minds," in P. French, T. Uehling, Jr., and H. Wettstein (e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ume XIX: Philosophical Naturalism*, Notre Dame: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_____ (1998). *Mind, Language and Society: Philosophy in the Real World*, New York: Basic Books.

_____ (2004). *Mind: a Brief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olomon, Robert. (2003). *Not Passions's Slave: Emotions and Cho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in, Nancy and Oatley, Keith (1992). (eds.) *Basic Emotions*, Ho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Wilson, J. R. S. (1972). *Emotion and Obj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rle, Kenny, and Building a Proper Theory of the Intentionality of Emotions

Youngjin Kiem

While noticing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build a more plausible theory of the intentionality of emotions, this paper discusses Searle's and Kenny's cognitivism regarding the nature of emotions. The research effort focuses on explicating how well Searle's general theory of intentionality could cover the intentionality of emotions. With respect to this, it is pointed out that Searle's theory cannot properly explain the intentionality of basic emotions that humans and non-human animals seem to share. Furthermore it is indicated that the Searlean cognitivist theory of the intentionality of emotions needs to be able to adequately pin down the intentionality of what Kenny calls two different sorts of emotions, that is, the type of emotions that can be experienced without using a language and the type of emotions that can only be possessed by way of mastering a language. From this consideration it turns out that Searle's and Kenny's cognitivism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ality of emotions require a new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issue about how and in what way the content of an emotional state is determined.

[Key Words] emotions, intentionality, the intentionality of emotions, cognitivism, Searle, Kenny